

# 승례문 ~ 광화문 2km... 촛불의 바다 “하야” 물결

세대·계층 초월 “국민 99%의 목소리 들어라”

문화공연·자유 발언·패러디... 시위를 축제로

## 르포-광화문 현장을 가다

초등학생, 수험생, 주부, 노인, 노동자, 정치인 등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인파가 전국에서 강줄기처럼 모여 바다를 이뤘다.

비록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제주에서 광화문까지 비행기로 날아왔다.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에 분통을 찔러 못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목청을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 기득권층을 제외하면 나머지 99% 국민의 함성이 들리지 않아요.” 시각장애 1급 김지훈(33)씨는 지난 12일 100만 인파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 섰다. 이날 제주에서 자신의 안내견 ‘리키’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는 서울에서 만난 지인 박진경(38)씨의 설명에 의존해 현장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눈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해도 온 국민이 목청 높여 외치는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함성이 주는 울림만큼은 가슴 속에 메아리쳤다. 강씨는 “헌법을 위반하고도 자리에 앉아 있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참함이 느껴져 광화문을 찾았다”고 말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을 찾은 100만명의 국민은 오후 6시30분께 ‘박근혜 하야’를 일제히 외쳤다. 광화문에서 시작돼 서울시청까지 파도처럼 밀려간 함성은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되돌아와 1km 떨어진 청와대를 향해 퍼져나갔다.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모이기 시작한 인파는 6시께 승례문에서 광화문까지 2km 길이의 대로와 주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오후 5시30분쯤부터 청와대를 향한 행진이 시작되자 1500여개의 깃발을 앞세운 인파가 승례문에서부터 광화문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어 장관을 이뤘다. 곳곳에서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준비한 공연과 퍼레이드가 펼쳐져 축제장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잇따라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상 최대 인파가 광화문광장에 운집했지만 쇠파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10대와 20대는 집회 현장에서 각종 패러디로 장식된 피켓을 선보이며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치유하는 모습이였다. 자유 발언을 통해 자신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소리높여 외쳤다.

어르신들은 인파 사이사이에서 “어른들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를 젊은 세대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경찰도 광화문과 청와대의 길목인 울곡로 앞에 차벽을 세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다. 물대포도 보이지 않았다.

대구에 살고 있는 남동화(49)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인 대구에서조차도 이미 민심이 돌아섰다”며 “오늘 모인 국민 100만명의 ‘하야’ 구호는 요구가 아니라 명령이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경민기자 kki@



지난 12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5000여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최순실 처벌’을 추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 광주 5천명·부산 2만명... 전국 주요 도시서도 10만명 집회

### 금남로 민족예술제 현장이 시국성토장으로

서울 도심이 전국서 촛불을 들고 물러든 인파로 가득 찬 12일 오후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을 비롯한 부산,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 시가지도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밤 5·18 광장에서는 광주민중예술단체총연합회(광주 민예총) 주관으로 ‘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탄하는 공연이 포함된 민족예술제가 진행 중이었지만, 촛불을 든 시민들이 불어나면서 ‘시국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오후 6시 민족예술제가 시작되자 시민들이 하나 둘 모이더니 7시 무렵엔 5000여명(경찰 추산 3500명)까지 늘어나면서 ‘시국대회를 열자’는 시민의 요구를 주체국이 받아들여지면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된 것이다.

집회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잇따라 무대로 올라가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집권 세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그때마다 시민들은 뜨겁게 호응하며 박수를 쳤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구호 하나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대에 오른 광주 삼육중의 한 학생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묻자

시민들은 “국민”이라고 함축소리로 외쳤다. “그럼 여러분, 서울 광화문까지, 청와대까지 들리도록 한 번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한 인성고 학생은 “우방우와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 나라가 이토록 망가지지는 않았다. 우방우를 구속하고 ‘권력의 앞잡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광화문으로 1만 명 이상이 빠져나

간 광주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열린 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온 주부, 자녀 손을 잡고 온 부부, 젊은 연인들, 70~80대 노인들까지 남녀노소가 가지 않고 몰려들면서 광장을 가득 메운 데 대해 시민들 스스로 뿌듯해하는 모습이였다.

같은 시각 부산 서면 주디스태화백화점 앞에서는 시민들이 비선 실세를 규탄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서면 일대를 행진했다. 애초 500여명에서 시작한 집회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2만여명(추치 측

추산)까지 모였다. 또 제주시청, 전주 풍남문 광장, 경주역 광장, 울산에서도 수백에서 수천 여명의 시민이 서울 광화문 ‘민중총궐기’ 상황을 인터넷으로 지켜보며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 교포들의 촛불집회와 시국선언,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집회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10여 개국 30여 개 도시에서 지난 11일과 12일(현지시간)에 진행됐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문재인·안철수·박원순...野 대선주자들 참여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의 촛불 집회에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대거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대회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며 “박 대통령이 국민 요구에 답하지 않는다면 거리에서 퇴진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퇴진 투쟁’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원보고대회에서 “바로 오늘 2016년 11월12일은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시민혁명과 국민항쟁의 날”이라며 “박 대통령이 물러가고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당이 온몸을 바쳐 이루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 “오늘은 새로운 국민 혁명의 날”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하야가 혼란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하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당의 규탄대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다수의 목소리는 대통령의 퇴진”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을 거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트위터에 “몹은 지역에 있지만 마음은 국민과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와 역사와 광장의 주인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단=임동욱기자 tuim@

## 광주 중학생들도 시국선언

### 전국 변호사 3200명도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광주에서는 중학생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학교 학생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구 운천저수지 4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짚어지고 나아가길 광주시 중학생들로서 조유의 국정혼란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필을 들어야 할 손에는 ‘박근혜 퇴진 해, 영원히’, ‘언제까지 대통령 하시렵니까’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이 들렸다.

학생들은 “1863년 11월 19일,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미국의 링컨 전 대통령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을 위로하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150년 전의 미국보다도 훨씬 뒤처진 (최) 순실의, 순실에 의한, 순실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왔다”고 비난했다. 학생들은 이어 “민심은 천심”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부끄러워 않도록 민심을 잃고 현명만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3288명으로 꾸려진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 모임’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 퇴진과 국정 농단 가담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 내 아이의 성적 팍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강사반 모집

##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

##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 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2016. 12월 19일(월) ~ 2017년 2월 4일(토)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1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long  
•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 2017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 구분      | 일시  |
|---------|---|
| 입학원서 작성 |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
| 입학원서 접수 |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 면접서류 포괄 | 청구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
| 전형일시    | 2016. 12. 7.(수) 10:00~  |
| 합격자 발표  | 2016. 12. 22.(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식품·차신학/지역환경자원공학  
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I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